

# 고은 불교 대하소설

## 불덩어리 솟아 오르다

그 것은 어떤 아름다움도 아닌 상태였다. 아니 아름다움을 철저하게 거절한 그런 아름다움의 부정으로 된 상태였다.

어떤 괴 할아떡던 아귀가 잠깐 불이와 합두의 한 덩어리 불 타는 광경을 보고 "이 세상 아귀계에서는 없는 일이 일어났어"라고 말하였다.

다른 아귀들은 이같은 불이와 합두의 처절한 애육에 대해서 몹시를 서슴치 않는 것이었다.

"입에 집어넣을 것도 없는 것들이 무슨 놈의 음양(陰陽)인가!"라고 육살을 퍼부어 대가까지 하였다. 밀려 열린(熱露)이었다. 남으로부터 실한 몹시를 받는 그런 지경이 그것이다.

하지만 두 아귀에게 근본적으로 잠겨있는 생명의 가운데 솟아올라 그들의 아귀 고통까지 불태우는 애육이라면 그 애육이 아말로 어떤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수행

"먹어야겠다!"

그 늙다리 아귀가 불이와 합두가 이룬 불덩어리 밑으로 깔리는 뜨거운 재에 성큼 나아가서 그 재를 짐승들이 그런 것처럼 잘도 찾아먹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아직도 활활 타고 있는 불덩어리 속에서 "합두!" "합두!"라는 소리와 "아 불이!" "불이!"라는 소리가 서로 언저서 들리고 있었다.

이러한 그들의 마작(魔的)이기까지 한 일치의 환희는 어쩌면 불교의 다른 한쪽에 서 심화된 밀교의 그 태양의 비밀과도 같은 순백(純白)의 괴를 토하는 것 같았다.

그들은 아귀계의 몸을 받은 이래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게 늙어버린 상태였다. 괴물이 삼킬만 한 재가 굶주림과 함께 노쇠도 가세한 결과이기도 하였다.

그런데도 그들의 환희는 마치 지도론(智度論)에서 말하는 환년약(還年藥)이라도

그들은不二門의 진리를 보인다음 다시 방편으로 하여금 지난날의 들로 갈라섰다 하지만 들은 언제나 동시에 한 생각을 내고 동시에 한 생각을 없애는 하나로서의 통일 따름이었다. 애육의 최고 경지가 아닐 수 없다

다른 아귀들은 다시 그들의 고통스러운 일상으로 돌아가서 다시 굶주려야 했고 목이 타아하였다. 그런 아귀중생을 감시하는 한 늙어버린 귀신이 혼자 중얼거렸다.

"사랑하는 일이 단 한번 있어서 그것으로 억겁의 아귀업을 받는다 한지언정 나처럼 이런 아귀계에서 세세생생을 이어가는 일이 없으니."

어느덧 그 귀신의 황한 무정(無情)의 눈에서 한번도 비쳐본 적이 없는 눈물이 아웅지는 것이었다.

"불이와 합두 두 아귀들이었지! 아니 이제 들이 아니었지. 굳이 그 이름을 부르지만 '불이합두' 이라고 해야겠지! 가당한 노릇이야."

아귀계는 식토(食土)라는 아귀도 있다. 아무리 그 아귀가 자육에서 살고 있는 신 세라 하더라도 그의 머리는 지상에서 하늘 속에 닿을 때도 있다. 몸 길이가 무려 12 리(里)나 되게 길기 때문이다.

이 어이없는 기다리는 누군가가, 어느 짐승인가가 먹은 것이 잘못되어 토해낸 것만을 뒤져먹게 되었으므로 그런 구토를 찾기는 아주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늘 굶주려서 키는 늘림에 크지만 몸매는 마치 철사 몇개가 꼬여있는 것 같은 비참한 말라붙어있는 것이다.

지난 생애 혼자만 자산을 독점하거나 혼자만 맛있는 것을 독차지하거나 한 밥단이



수미산

의 시작이 아닐 것인가.

그들에게는 일체의 말이 없었다. 일체의 주고 받는 수작도 없었다. 오로지 한 덩어리가 되었고 그것은 진리가 그런 것처럼 불이(不二)의 경지일 수 밖에 없는 데까지 가버리고 있는 것이었다.

그렇게도 준수했던 불이. 그렇게도 잠근 잠근 입어먹고 싶게 아름다웠던 합두였으나 이제 가장 흉한 해골에 입혀진 집집 형상의 두 아귀일 따름인데 이 추악한 형상으로서의 눈부신 애육의 불길은 어디서 생겨 나서 이토록 불타고 있으니 이것은 얼마나 비참한 노릇이겠는가.

칸란하거나 어둑어둑하거나 침울한 아귀계와 여러 공간들이 그들이 만든 불덩어리 불빛으로 서로의 불꽃에 빛을 받아 더욱 적나라한 바였다.

어느 늙다리 아귀가 힘없이 외쳤다.

"어서 빨리 타버려라. 재가 되어라. 그 재라도 알아먹고 싶구나."

어느 아귀가 그 말을 막았다.

"저런 애육의 재를 먹으면 잠자 그 재의 업장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오?"

"애육의 괴로움이 이 굶주림과 목마름의 괴로움보다 더 무섭다는 말인가?"

"무섭다마더요. 열감닐! 열감닐은 이곳 아귀계 업장이 얼마 남지 않아서 다른 세상에 태어날 때가 가까워 오는데... 하필이면 저런 애육에 눈이 멀다니... 애육의 재를 먹고 어떡해요?"

먹은 것 같았다. "...이와 같은 늙은 몸으로 또러어 소년의 몸이 되었으니 환년약을 먹는 것과 같다"라는 구절이 그것이었다.

다른 아귀들이 그들에게 한 잘나도 멈추지 않는 아귀의 괴로움을 문득 잊어버리게 하는 그윽한 착각의 근원적인 힘에 의해서 한 덩어리 불빛덩어리에 집중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불빛덩어리는 지하의 아귀계에서 지층을 뚫고 솟아올라 정정 수륜(水輪) 금륜(金輪) 위로 상승하고 있었다.

이런 과정을 지옥 최상층의 아귀계에서도 바라볼 수 있었다. 불이와 합두는 완전히 하나의 생명체로 되어 그 생명을 기쁨으로 삼아 그 불타는 함에 의해서 위로 위로 올라가는 것인지 모른다.

그것을 사바세계의 불이라고 말할 까닭도 없다. 그저 어둠 속의 상공으로 그 불빛덩어리는 찬란한 불빛의 꼬리를 달고 올라가고 있었다. 이제까지 이런 광경은 거의 없었다.

어떤 도인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시선으로부터 불빛덩어리가 마치 유성(流星)처럼 떨어지거나 하늘 높이 사라진 일을 목격한 일이 사바세계 인간계에서는 있었거니와 이런 아귀계에서는 없는 일이었다.

## 아귀고통까지 불태우는 애육이야말로 새로운 수행의 시작 아닐까

이것이였다. 그는 구토물을 찾을 수 없어서 굶주린 적이 얼마나 많은 나날로 이어지는 괴로움의 최수인인가.

그가 태곳의 흐린 날 구토 속에 들어있는 머리 부분에 속한 입에서 배 고파! 배 고파!라고 외치는 소리는 구토물도 그 비참한 소리가 우뢰나 천둥소리의 시작으로 되는 것을 짐작하고 한층 더 짙은 빛깔로 땅 위를 덮는 것이다.

이런 '식토 아귀' 다음으로는 '식법(食法) 아귀'도 있었다.

이 아귀는 가파로운 수직 벼랑의 입벽이나 아주 위험한 곳을 아슬아슬하게 기어올라 먹을 것을 찾아다니는 것이다.

눈 눈에서는 더러운 눈물이 나오고 살갗은 거무튀튀해서 마치 남천축 건너 아라비아해 저쪽의 토인(土人)과도 같은 살색이었다.

지난 세상에서 명예나 이익에 탐닉한 정치인이나 의사 그리고 졸부들이 아귀계에

와서 이같은 '식법아귀'가 되는 것이었다.

'식수(食水) 아귀'란 또 무엇인가. 굶주림과 목마름에 뜨겁게 내장을 태우며 물을 찾아헤매는데 그 물 찾는 절규와 소란은 다른 아귀들에게 잔인머리를 내게 한다.

어찌다가 숲 속의 웅덩이를 만나자 눈이 번쩍 뜨는 기쁨으로 거기에 입을 대치마지 그 웅덩이를 지키는 귀신에게 살것 얻어맞고 명물거나 다리가 질뚝거리게 상하거나 하는 것이다.

이런 '식수아귀'는 생전에 술에 물을 타 팔거나 소에 물을 먹여 무게를 더해서 팔거나 한 사람이면 으레 면할 수 없는 아귀업이다.

또한 별 이유 없이 물에 미물들을 처넣어 죽인 죄업이 이런 업보를 받게 되는 것이다.

어디 그 뿐인가. '확신(鑿信) 아귀'도 있다. 이 확신아귀는 숫세 눈도 열공도 없다. 손발은 있으며 가마솔 다리와 흡사하다. 몸 길이는 서너길이나 크다.

진 해골바가지 아귀"

그러자 다른 아귀가 말을 덧붙였다.

"불이도 불이지만 나는 합두를 아주 좋아했어... 나는 그가 살던 저 사바세계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 삶에서도 살았대... 금륜(金輪) 위의 드넓은 바다에는 너무 큰 섬만 떠 있어서 그것은 섬이라고 할 수 없지... 아무튼 나는 합두 곁에 있을 때는 태고의 고통이 좀 덜하는 것 같았는데... 무슨 이상한 향기도 맡을 수 있었는데..."

그러자 '변귀기귀(變異奇鬼)'의 색다른 아귀들이 나타났다.

그들이 나타내지마지 이 지옥계의 한 가지 장차리인 아귀계가 갑자기 산해진미가 가득 차려진 축제의 장소로 바뀌는 것이었다. 그것은 정녕 상상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하였다.

그런데도 그 산해진미 앞에 찬성한 아귀들이 조금도 기뻐하지 않고 그것을 먹지 못하는 처지로 그저 괴로워하고 있을 따름이었다.

어떤 아귀가 일어선더니 붉은 기둥에 대

하는데 아무리 파악어도 늘 부족하였다.

사실만큼 불이와 합두가 바로 이 시체에 아귀들과 함께 지낸 적이 있었다.

그래서 합두에게서 시체의 안취가 나고 있다가 그 안취가 차츰 변해서 아주 좋은 향기로 바뀐 것이었다.

자금 불이합두는 어디에 가 있는 것인가. 아니 그들은 불빛덩어리가 다한 뒤에는 다시 하나로부터 둘로 나뉘어졌다.

불이문(不二門)의 진리를 보인 다음 다시 방편으로 하여금 지난 날의 들로 갈라선 것이다. 하지만 들은 언제나 동시에 한 생각을 내고 동시에 한 생각을 없애는 하나로서의 통일 따름이었다.

그러므로 '불이!'라고 합두가 부를때 불이는 '합두!'라고 부르는 것이어서 그것은 동시발음이 되었다. 애육의 최고경지가 아닐 수 없다.

그림·조향숙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 海水觀音 방생도량

해동용궁사는 뒤는 산이요, 앞은 푸른바다에 펼쳐진 절경으로 관세음보살님의 진신(眞身)이 상주하시는 관음기도도량이며 방생도량입니다. 금번 용궁사에서 관음대불을 봉안하옵고 많은 기적과 불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용궁사는 특히 삼사순례나 방생법회를 하시는 데 가장 좋은 곳으로 유명하오니 전국의 주지스님과 신도님께서 방문하시면 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입장료 무료  
대형주차장 완비  
방생물 예약 준비해드립니다  
해운대-용궁사 10분 거리

해운대 • 관음스 • 기동 • 용궁사

용궁사

용궁사 오시는 길

해운대 달맞이길 → 승정 해수욕장 → 용궁사 (051)722-7744, (0) 722-7755

## 중국 명문 한의대 남경중의약대학 박사과정 연수

■대 상: 한의사, 한약사, 스님, 불자 의학, 침, 기공에 관심있으신 분

■기 간: 8박 9일

■주요연수내용: 중풍, 당뇨병, 좌골신경통 침 치료, 지압치료법, 기공 등

■연수후: 박사과정 연수 수료증 수여 (침구 기공)

■인 원: 15명 이내

■출발일: 1996년 1월 11일(목요일)

■남경중의약대학: 중국 남경 660-7129

■문의처: 자매대학 삼화불교대학

TEL: (02) 511-2026 · 2027  
(02) 511-2028 · 1080  
FAX: (02) 511-1080

“ 2천 만에 깨달음을 ”

나를 바로 보고, 세계를 바로 보고, 침수행으로 이끄는 신행의 길잡이!

현 대 불 교 신 문

구독신청안내

본사

- 대표 02-737-8881 • 광고국 02-737-0692
- 팩스 02-737-0697 • 전화실 02-737-0693

부산지사

- 전화 051-634-5114 • 팩스 051-634-5188

광주지사

- 전화 062-375-9986 • 팩스 062-371-7544

대구지사

- 전화 053-427-8008 • 팩스 053-425-8356

경기지사

- 전화 032-613-4027 • 팩스 032-665-0965

목포보급소

- 전화 0631-281-2534

공주보급소

- 전화 0416-55-0020